

国宝로指定된 堯明科學文化財들

天象列次 分野之圖 刻石

국 보 : 제228호
소 재 : 창덕궁 유물창고
제작년대 : 1395년 (조선 태조 4년
洪武 28년)
재 료 : 烏 石
크 기 : 가로 122.5cm, 세로
211cm, 두께 12cm

天文圖는 왕조의 권위의 表象으로, 고대 왕조는 천체 관측 결과를 규격화하여 星圖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고구려가 천문도를 石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실은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제작한 天象列次分野之圖 石刻本에 새겨진 權近의 글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다.

『陽村集』에도 그 글 즉「天文圖

詩」가 실려져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이 천문도의 제작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선조에는 고구려가 망할 때 천문도 석각본이 전란에 의해서 대동강 물에 빠져 버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평양성에 있었던 고구려 천문도 석각본의 印本은 있었다. 그 印本은 고려에 계승되었다.

조선 왕조를 세운太祖는 즉위해서 부터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새 왕조의 王者로서의 권위의 표상으로 새로운 천문도를 갖기를 염원했었다. 고구려 천문도의 印本은 조선 초에는 매우 희귀해졌는데 태조가 즉위한지 얼마 후 그 印本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태조는 매우 진귀하게 여겨 그것을 重刻하게 하였으나 書雲觀에서는 그 연대가 오래되어 星度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오차를 교정하여 새 천문도를 작성하기로 하고 새로「中星記」한편을 편찬하여 그에 따라 星圖를 석각하여 완성한 것이다.

천문도를 만든 書雲觀의 학자들은 다음 12명이다.

嘉靖大夫 藝文春秋館 學士 權近 (教記)

嘉靖大夫 檢校中樞院 副士 柳方澤 (教推算)

中直大夫 校書監 愰慶壽(教書)

書雲觀

集賢殿 大學士 權仲和

兼判書 嘉靖大夫 崔 融

兼判書 嘉靖大夫 盧乙俊

兼正 嘉靖大夫 尹仁猷

判事 通訓大夫 池臣源

承通德郎 金推掌

漏啓功郎 田潤權

知掌漏 進勇副尉 金白緜

司後領散員 金 候

天象列次分野之圖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石板을 크게 위 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모든 내용을 배치하였다. 위 부분에는 12圖分野 및 星宿分度 日宿, 月宿, 天, 그리고 8개 방향에 대한 짧은 설명이 사방에 있고, 석판의 중앙에 지름이 76cm의 3층 원이 그려져 있어 그 안에 모두 1,464개의 별들이 點으로 표시되어 있고, 星宿의 이름이 해당한 위치에 새겨져 있다.

윗 부분에서 46cm의 간격을 두고 3단으로 된 아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天象列次分野之圖라는 천문도의 이름이 큰 글로 첫째 단자에 論文과 28宿去極分度가 중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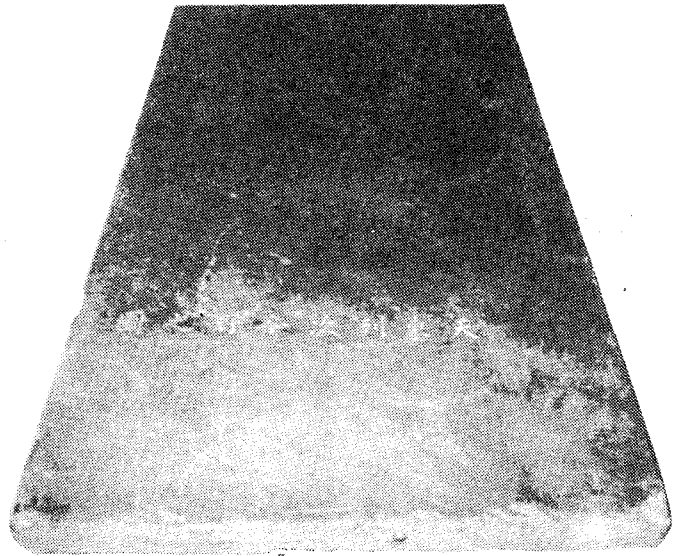
- …… 우리의 傳統 發明科學文化財는 韓民族의 發明科學的 創造性을 나타내는 값진 遺……○
- ……產이다. 그러나 이들 發明科學 文化財는 그 동안 認識 不足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
- ……왔다. ……………○
- …… 此際에 文公部가 世界 唯一의 渾天時計 등 3點을 國寶로, 水標 등 15點을 寶物로……○
- ……指定한 것은 우리 祖上의 슬기로운 創造精神을 이어 받고 全國民에게 發明科學하는……○
- ……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려는 措置로 評價되고 있다. ……………○
- …… 特히 國寶 및 寶物로 指定된 遺物들은 傳統發明科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天文 ……○
- ……氣象分野의 遺物과 地圖(之圖) 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
- ……리의 文化를 말할 때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라고 해온 創造的 遺產들이었다……○
- ……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값진 國寶 및 寶物들의 內容은 커녕 어떤 모……○
- ……양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에 本誌는 特別企劃探查를 마련, 이들 國寶 및 寶物을 探……○
- ……査하여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에, 맨 아래 단에 이 천문도 작성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그리고 제작에 참가한 사람들의 판적 성명이, 끝으로 제작 년월일 洪武 28年 12月이 기록되어 있다.

이 천문도 석각본은 현재 그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글자는 완전히 판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석판 윗쪽 끝의 두 모서리는 깨졌고, 十二圖分野星宿分度, 日宿, 月宿, 天의 기사들은 거의 모두 마모되었고, 큰 월안에 새겨진 별들은 절반 정도만 완전히 알아 볼 수 있다. 論天 기사는 거의 완전히 마모되었으나, 二十八宿去極分度는 거의 다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제일 아래 단의 천문도 설명 부분과 晝雲觀 부분에서는 557자 중에서 78자만이 해독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마모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증보문헌비고』의 표현대로 세월이 오래 되어 마멸되어, 속중때 새로 다시 새길 수밖에 없긴 하였지만, 해방후의 혼란, 6.25 한국전쟁을 거치고, 60년대 초의 과학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더 심하게 마멸 훼손되었다.

1961년에서 63년 사이만 해도 창경원 明政殿 뒤에 보관하긴 했어도



그 넓적한 석판에 비나 오는날이면 사람들이 올라 앉아 도시락 먹는 장소가 되기 일쑤였다. 그 보다 더 심한 것은 어린이들이 석판 위에 모래를 뿌리고 벽돌을 밀고 자갈을 굴리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긴 하지만, 이 석각 천문도는 중국의 南宋 淳祐丁未(1247)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학문적으로는, 고구려 석각 천문도의 전통을 계승한, 그 원형을

집작케 하는 유물이며, 『陽村集』의 기록을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천문도의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옮겨 보던 다음과 같다.

영조 46년(1770)에 觀象監에 閣을 세우고, 그 속에 國初의 석각 천문도를 보관하였다. 임금이 액자를 써서 欽敬閣이라 이름 하였다.

더위도 창을 열지 않는 것은 늘 누워 있기 때문이다.

圖說에 이르기를, “角宿의 두 별을 12도, 亢宿의 네별은 9도 氐宿의 네 별은 15도, 房宿의 네별은 5도 心宿의 세 별은 5도 尾宿의 아

